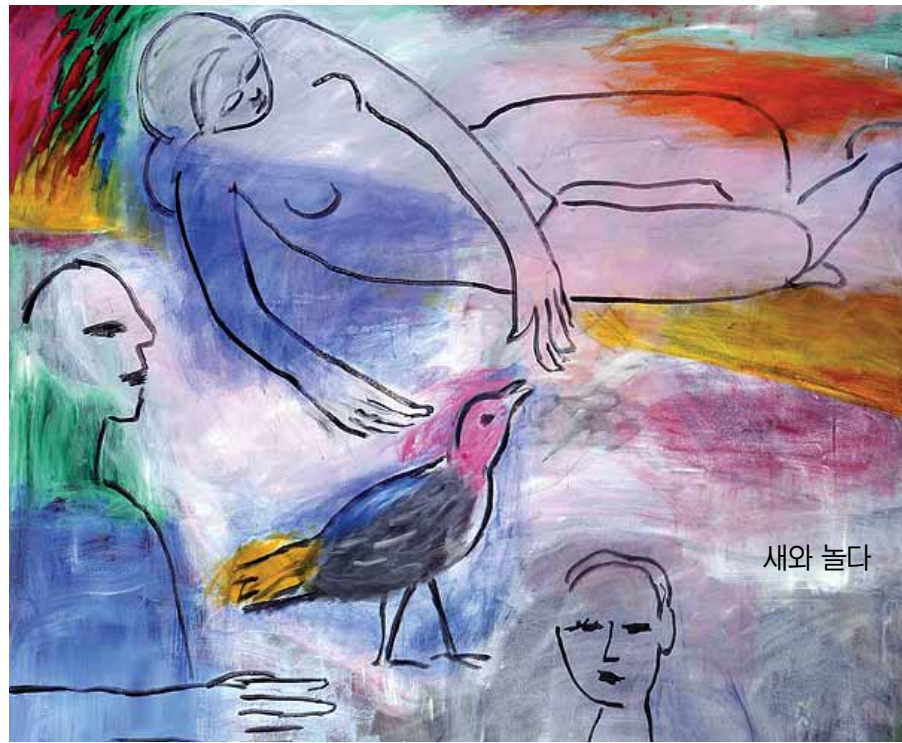


조선대 미대 창설의 주역



故 김보현



새와 놀다

‘추상표현주의’ 그림 속 낙원으로 초대합니다

광주 신세계갤러리 1주기 추모전 ‘김보현-새로운 생’
23일~2월 24일 30여점 전시...인천 등 전국 순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보현(사진·미국명 Po Kim) 화백은 ‘영원한 현역’으로 불렸다. 조선대 미대의 산파였던 고인은 살아생전 “백 살까지 살아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노년에 활체에 여 목을 의지한 채 대형 캔버스를 호방하게 때운 그의 붓질은 “은 몸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작가의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다. 생의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운 그의 작품에서는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피안의 세계가 느껴진다.

신세계갤러리는 미국 추상표현주의에 동양의 정신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재미 1세대 작가인 김 화백의 1주기(2월 23일~2월 24일),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2월 26일~3월 30일), 신세계갤러리 인천점(4월 1일~4월 27일) 전시로 이어지며 5개월간 신세계갤러리 전점을 순회한다.

지난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1937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태평양미술학교에서 그림공부를 했다. 유학에서 돌아온 고인은 1946년 조선대 미대를 창설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며 학교의 기틀을 다졌다. 원로화가 김영태 화백이 그의 제자다.

하지만 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발



▲ 새로운 생
▲ 그 후
▼ 흰 양파

발 후 좌익 혐의로 고문을 받았고, 1950년 6월에도 학생들과 아오스케치를 떠났다. 가 좌익 혐의로 연행됐다. 미 군정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핍박받던 그는 결국 1955년 고국을 등진 채 도미해 미국에서 ‘포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때부터 김 화백은 ‘잊혀진 화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김 화백은 꼬박 40년만인 1995년 고국으로 돌아온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원로작가 초대-김보현’전에 초대받으면서 고국과 화해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듯 그는 다시 광주, 그리고 조선대와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 지난 2000년에 아내인 고 실비아

월드 여사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40여점의 작품을 조선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김보현 미술관을 운영중이다.

김 화백은 한국에서는 ‘잊혀진 화가’였지만 미국 화단에서는 작품세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의 장례식은 이례적으로 맨하탄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렸다. ‘김보현-새로운 생’ 전시에서는 70년대 정밀화와 80~90년대 대표작을 비롯해 작고하기 2년 전 제작된 대작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김 화백의 생전 인터뷰 영상 등도 함께 선보인다.

김 화백의 6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당대 유행하던 미국적 추상표현주의와 구분되는 독자성으로 현지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고인은 서예의 획을 굵게 사색과 집중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붓질로 화면을 구성했다.

70년대에는 한국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 심리적 수평의 과정으로 사실주의와 추상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된 작품들을 선보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대작 유행을 이어갔다. 젊은 시절 겪었던 약물의 반대편에 있는 이상향, 즉 낙원의 파노라마를 화폭에 담았다.

전시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즈아트클래스-알록 달록 색채 소망상자’가 진행된다. 김 화백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작품 속 자주 등장하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담은 상자 안에 2015년 각자의 소망을 담아갈 수 있는 미술수업이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토리와 서사, 긴장관계일 때 소설은 역동적이 된다”

본사 박성천 기자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 펴내

문학 작품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소설 장르는 스토리 자체와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된다.

본사 박성천 문학기자 겸 예향 기자(사진)가 펴낸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박문사)은 ‘이야기’와 ‘이야기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저자가 전남대 국문과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강사 생활을 하는 기간에 걸쳐 연구했던 논문들을 엮어낸 결과물이다.

저자가 현대소설을 연구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스토리’와 ‘서사’다. 스토리가 인물과 사건, 행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의 결합인데 반해 서사는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구조화한 전략이다. 즉 스토리는 이야기 자체이며 서사는 이야기를 형성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와 서사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역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 또한 복잡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저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공지영, 권여선, 이태준 등의 소설은 스토리와 서사가 열린 관계여서 단선적인 해석만으로는 포괄이 안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작가들이 특정한 이야기를 저마다



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양상이다.

저자는 “대학 때부터 소설을 공부하고 써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분야가 소설이다. 하물며 평생을 연구하고 창작을 해온 전문가들도 쉬이 정의하지 못하는데 연구도 창작도 일천한 자신이 알기에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그럼에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을 매듭짓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2006년 ‘소설시대’ 신인상 수상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지금까지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기행집 ‘강 같은 세상은 온다’, 연구서 ‘해한의 세계 문예사 연구’,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정희’ 등을 펴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충북 충주서 세형동검 등 청동기 유물 19점 출토

신라와 백제, 가야가 본격 태동하기 직전 기원전 2~1세기 한반도에 집중 등장하는 목관묘가 충북 충주에서 발견되고, 그 중 한 무덤에서만 세형동검(細形銅劍) 7점을 포함한 각종 청동기 유물 19점이 쏟아졌다.

【사건】 매장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인 중원문화재연구원(원장 강경숙)은 지난해 8월부터 충주시가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호암동 628-5 일원을 발굴조사한 결과 구석기

유물포함층을 필두로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3세기~서력기원전후) 무덤 3기와 통일신라~조선시대 무덤 각종 무덤, 그리고 삼국시대 숫가마 2곳 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돌무지나무널무덤은 주로 전남에서 확인됐다. 1971년 화순군 대곡리에서는 이번에 출토된 것과 같은 세형동검, 잔줄무늬거울, 청동 새기개와 더불어 청동 방울 등이 함께 발견돼 1972년 국보 제143호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